

투데이 칼럼

적자국채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다고?

며칠 전, 2019년 추경 안은 5조 8300억 규모로 확정되었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2017년, 2018년 한 차례씩 추경을 계속 실행해 왔지만 적자국채를 편성하여 추경을 진행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자국채 편성 사례 중 추경용 적자국채(적자국채: 예상되는 세수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 차액만큼 발행하는 국채)의 발행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메르스 추경'에서의 6.6조원 적자국채 발행이 마지막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 말고도 당선 직후인 2013년 1차 추경 때는 세수 증당 목적을 위한 17.3조 규모의 추경을 진행하며 무려 8.7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즉 적자국채는 여태껏 추경의 '통상적인'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대관절 야당들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물 쓰듯이 사용했던 적자국채를 왜 이제 와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어제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자비용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자'의 관점에서 봐도 허나만 알고 들은 모르는, 또는 모르는 척 하는 소리이다. 문제



박보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인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는 사용할 세제임여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 하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년의 세계 잉여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놀랍게도 이자비용을 감감하는 데 사용되었다.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연초 국채 발행 계획 대비 9조원의 국채를 덜 발행했기 때문이다. 즉 재정계획상 총 13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경감한 셈이다.

2018년 국고채 발행 계획량은 총 106조 원 가량이었고, 이 중 실제로 발행된 금액은 대략 97조원 정도이다. 즉 이를 계획대로 발행했다면 결산을 할 때 세제임여금이 당연히 추가로 잡힌다. 원래 정부의 결산보고서에는 부채로 조달한 수입도 총 세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작년

에 안긴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야당들이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본인들 집권할 때는 7조, 6조씩 적자국채 편성 쓰다가 이제 와서 고작 6.7조 추경에 3.6조 적자국채 발행에 그렇게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예결위원장 김재원 의원은 편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술까지 마셨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자태다.

평상시에 국가 결산 서류 한 번 제대로 뒤져 볼 시간은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안 좋아지면 국민들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자신들은 재집권의 길이 보인다든 판단인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은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런 면 이전 빛을 앞만 깔고 돈의 용처가 정해지면 발행을 할지의 조삼모사적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행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추경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가 결산 서류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 봤다면 "적자국채가 국민들에게 고통

을 안긴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평상시에 국가 결산 서류 한 번 제대로 뒤져 볼 시간은 없었는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안 좋아지면 국민들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자신들은 재집권의 길이 보인다든 판단인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은 연준(Fed)이 금리를 인하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이런 면 이전 빛을 앞만 깔고 돈의 용처가 정해지면 발행을 할지의 조삼모사적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은 행은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추경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가 결산 서류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 봤다면 "적자국채가 국민들에게 고통

사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발해야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앞으로 발전 가속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익산시에 따르면 원재료를 위한 중계 공급 센터 등 식품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설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은 저번에 정부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방편을 밝힌 것을 생각나게 한다. 첨단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한 거 말이다. 최근 들어서 실제로 전국의 여러 기업들이 전북을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도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식품클러스터에 전체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중 60%에 해당하는 90개의 기업을 연내에 유치 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의 관계자들은 더욱 힘내야 한다.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의 식품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전국의 식품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 익산의 식품클러스터는 식품 벤처 분야에 활성화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리가 있다고 해서 속으로 흠뻑 해 해서는 안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속도감이 낮다. 도민이 본래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익산 식품 클러스터의 현재 모습은 미흡하다. 지난해 보도된 뉴스를 보고 답답해 했던 게 다시 생각하는데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일반 산업단지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라는 우려가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주 환경이 안좋아 근로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식품클러스터가 준공된지 만 1년 8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7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분양률이 48.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도민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본래 희망했던 바 그대로의 위용을 드러내게 되면 익산시는 그만큼 발전해 있을 게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명실공히 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할 터이다. 그리고 도내 농가들에게도 경제적 실익이 상당할 터이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시대를 위해서 더 많이 마음을 써야겠다.

지역 발전, 최고의 관심사가 돼야

지역 발전은 최고 관심사가 돼야 한다. 7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그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지역의 낙후를 생각하면 8조원 예산이라도 만족을 말할 수 없다. 현 정부도 역대 전임 정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음을 확인된 바 있다. 이때 전북도는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군산 경제가 몰락한 지 오래 됐건만 정부와 정계의 고위 관계자들에게만 급할 게 하나도 없는 변방의 일로 무시되고 있는 까닭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해찬 여당 대표의 오래 전 발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최근의 일만 해도 전북이 광주와 전남에 비해 후대를 당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전북 혁신도시의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빨간불인데 광주 전남 쪽의 한전공대 설립은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제3금융도시 지정도 새만금 공학건설도 해를 남기고 있는데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의 주요 현안들이 풀릴 줄 해를 남기고 있는데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정부 측 인사의 발언에 따라 다

른 것들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들은 지금 감정이 상해 있다.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인데 결단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예전과 달리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도지사가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내년 예산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있기에 답부할 것이 있다. 도내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속도감을 보여야겠다.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능력 발휘가 있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무슨 일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다. 전북도는 스스로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전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히 뛰어달라는 당부이다.

독자제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을뿐더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폭염(暴炎)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33도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을 때 폭염경보는 35도가 2일 이상 이어질 것 같을 때 예보된다. 폭염은 건강에 '상당히' 위험하다. 극심한 더위는 탈수와 과열을 일으켜서 열사병을 발생하게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체온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 노화로 인해 땀의 배출량이 적어진 노인, 심뇌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일기예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무더

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에 대한 특보가 발령됐다면 야외 활동을 삼가야 한다. 앞서 설명한 취약계층은 더위에 특히 약하므로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겠다. 심의활동을 해야 할 경우 땀이 잘 되는 옷과 밝은색의 옷을 입어야 하며, 햇볕 차단을 위한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신 시원한 음식, 특히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나 샐러드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커피나 찬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자주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한여름 폐쇄된 차 실내온도는 60~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이때문에 차를 그늘에 세워두고 창문을 열더라도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다. 에어컨을 켜놨더라도 호흡곤란과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알아두셔야겠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실외작업장에서 일한다면 폭염안전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